



지난달 27일과 31일 시간당 최대 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두 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은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일대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집안도 가게도 물바다 됐는데 호우 대책 모래주머니 뿐인가”

르포 - 광주 주월동·화정동·운암동 침수지역 주민들 '분통'

광주 도심에 최근 나올 간격으로 시간당 최대 6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상습침수 지역 곳곳이 물에 잠겼다. 시민들은 광주시와 5개 구정이 이번 집중호우에 탁상행정인 아닌 현장 위주로 대비했더라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고 분노했다. <관련 기사 3편>  
실제 광주시 등은 집중호우에 앞서 지난달 24일 역대급 태풍인 '솔릭'이 광주를 덮칠 것으로 예상하고 비상대책반까지 가동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다행히 비가 내린 뒤에 찾아온 몇 시간짜리 집중호우조차 견디지 못하고 막대한 침수피해가 났다.  
3일 침수피해를 당한 한 시민은 “불과 몇 시간 쏠아진 비에도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되버리는 데, 애초 예보대로 비바람이 거센 중대형급 솔릭이 광주를 덮쳤더라면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제는 태풍이나 비 예보만 들려도 가슴이 떨거 내려앉는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번 광주시가 지정된 상습침수지역(구간) 중 한 곳인 서구 화정동 서석고등학교 인근 주택가에 입구마다 잔뜩 쌓여 울린 모래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시간당 최대 61mm의 집중호우가 주택가를 휩쓸고 가면서 방안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 박모(64)씨는 “이곳은 지대가 주변보다 낮아보니 광주시교육청 인근 도로 등 동·서·남·북 4방향에서 빗물이 달려들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빗물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물이 잠긴다”면서 “매년 물난리가 반복되지만 지자체에서는 모래 주머니만 쌓아놓을 뿐 다른 대책은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씨의 집은 비에 잠긴 이후 매일같이 제습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벽면 곳곳에는 벌써 검은 곰팡이가 피고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날 찾아간 운암동 주민센터에서는 곳곳에 우수관이 설치돼 있었지만,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였다. 특히

우수관 중 일부는 주민들이 빼서 나가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장판이나 고무판으로 막아 놓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이번 폭우로 166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되는 등 가장 피해 컸던 광주시 남구 주월동은 이날도 방역과 복구작업이 한창이었다.  
두 차례의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 김모(여·47)씨는 “집 앞에 있던 우수관이 역류해 전화민원은 물론 남구청까지 찾아갔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특히 지난달 31일 집중호우는 하루 전날 폭우가 예고되는 등 침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남구청이 모래주머니조차 비치하지 않는 등 즉각 대응을 해 피해를 더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0~100mm 비가 쏟아지겠으며, 시간당 최대 4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3일 예보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시, 산하기관장 찍어내기?

시장 질타에 감사위 집중감사 나서 ... 물같이 신호탄인 듯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을 잇따라 집중 감사에 나서면서 “산하 기관장 물같이”를 위한 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민선 6기에 선임된 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도시공사와 광주환경공단 후임 기관장에 이용섭 시장의 고향-학교 후배인 ‘함평-전남대 출신 인사들’이 집중 거론되고 광주테크노파크 수장으로 이 시장의 관료 후배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이미 후임을 정해놓고 현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광주시도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최근에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부 산하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인사 행태를 노조가 질타하고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기

관장 물같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3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산하기관 혁신기획단(T/F) 구성과 감사위원회의 정밀 감사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대회에서 “산하공기업의 인사 전형, 비리, 무사안일, 무능한 리더십과 직원들의 허극상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최근 인사와 관련해 내부감등 등 감사가 일었던 도시철도공사와 광주환경공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 감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공공로케도 신용보증재단과 복지재단,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으로 기관장 물같이와 맞물려 논란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 광주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들 기관의 감사결과를 적극 외부에 알리기도 했다.  
현재 광주시 산하기관은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20곳 등 모두 2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관장이 공식인 곳은

도시공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그린카진흥원 등 4곳이다.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11월)·광주영아방송(9월) 등 2곳이다.  
나머지 기관은 내년 이후까지 현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데 광주시는 내부 감등을 빚는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무리한 감사 행보가 이 시장의 산하 기관장 물같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에 4건의 감사 재심의가 요청된 상태다.  
광주시 산하기관 한 기관장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감사는 중요한 광주시의 기능이 산하 단체장의 사퇴를 유도하는데 악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현재 “대학교수도 노조 만들 수 있다”

“노조설립 금지는 위헌”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총연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다만 교원노조의 설립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2조는 4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

에 따른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사립대학교 교수와 국립대학교 교수로 구분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사립대학교 교수와 관련해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운영에 참여하지만, 교수협의회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과 교섭할 수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며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무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광주일보

굿모닝 예향  
- 한희원의 조지아·아르메니아 ▶16면  
5일까지 두발씩 반 남았는데...  
- KIA, 절박한 순위 싸움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HNT 하나투어

# 추석여행

## 추석특별기 타고 무안공항에서 떠나요!

9월 21일 홋카이도(북해도)  
9월 22일 대만 / 하노이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이용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자 인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여행대금 지불방법] (종료구경) 서울시 중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별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직접/발행일 14일 전까지/발행일 수 16, 1577-1233/ARS 안내번호 02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 포함 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국제항공료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를 국가 지정 현황 | ● 여행 유의 ● 여행 자제 ● 취소 권고 ●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약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하나팩

9/22 출발 무안-하노이

하노이/하롱베이/헨프 5일  
발마사지+4성급호텔  
1,290,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비엠펜항공 ✕하롱베이(3)  
#비경관광 #엔드 케이블카 탑승

9/22 출발 무안-대만

대만/지우펀/야류 4일  
천둥날리기+단수이  
1,1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중화항공 ✕타이페이(3)  
#오감만족 #식도락여행 #한정특가

9/21 출발 무안-삿포로

홋카이도(북해도) 5일  
온천호텔2박+계요리  
1,590,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티웨이 항공 ✕삿포로(1)-노보리벡트(1)-도야(1)  
#삿포로 시내관광 #오타루 운하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점 062)228-1199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